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미 증시, 관세 정책 경계감, 엔비디아 부진 등으로 하락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7일(목) 미국 증시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% 관세 여파 등으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, 중국 당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엔비디아(-2.1%) 부진 등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(다우 -0.37%, S&P500 -0.33%, 나스닥 -0.53%).

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2.4%로 기존 잠정치(2.3%)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,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 증가가 성장을 상향 조정에 기여. 그 외에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 대비 1,000건 감소한 22.4만 건을 기록하였고, 2월 미국 잠정 주택판매도 전월 대비 2.0%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(1.5%)를 상회하는 수치 기록. 최근 발표되는 다수의 실물(hard) 경기 지표를 확인해보아도 미국의 경기 및 고용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침체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가능.

최근 일부 서베이 지표 등 소프트(Soft)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우려도 결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, 글로벌 무역 분쟁 등 향후 관세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국면이 지속되는 흐름. 실제로, 미국 증시도 4/2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장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증시 내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흐름을 연출. 즉, 상호관세 발표 이전까지 미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4/2일 이후 개별 국가와 미국 간 협상이 어떤식으로 진전되는지를 확인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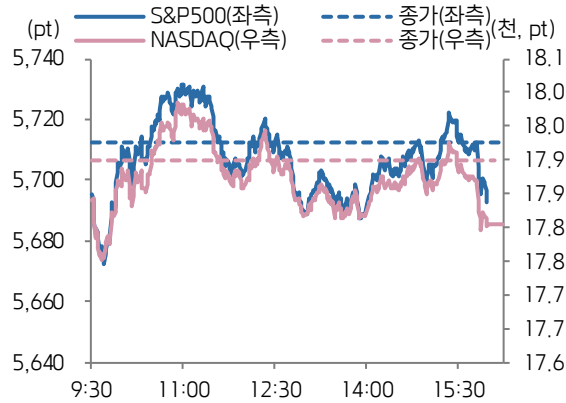
한편, 미국 AI 업종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연출하는 점도 고민거리 중 하나.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조치와 중국 내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또한 환경 규제를 수단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. 그 외에 MS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, AI 관련 수익성 우려 재점화 등도 AI 관련 기업의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.

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% 관세 부과 발표,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및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 재점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, 자동차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마감 (코스피 -1.39%, 코스닥 -1.25%).

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낙폭과대 인식 속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자금 일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, 차주 공매도 재개(3/31), 상호관세 발표(4/2)를 앞두고 경계감 높아지며 관망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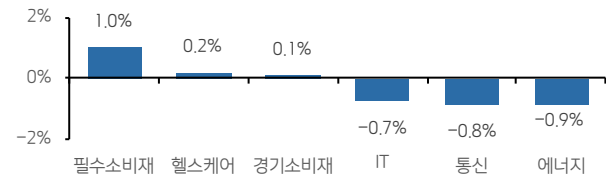
한편,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행보에 주목해볼 필요. 최근 디램 가격 반등에서 비롯한 메모리 업황 조기 턴어라운드 기대감 반영되며 3월 들어 외국인인 삼성전자를 약 1.7조원 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. 전일 관세 경계감 등으로 코스피가 1.4% 가량 하락했음에도 삼성전자는 0.7% 상승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였음.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일관성있는 수급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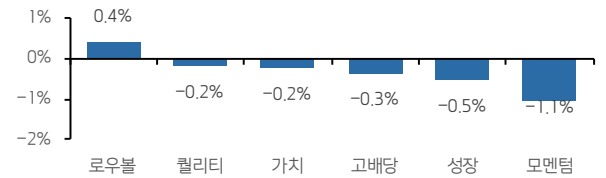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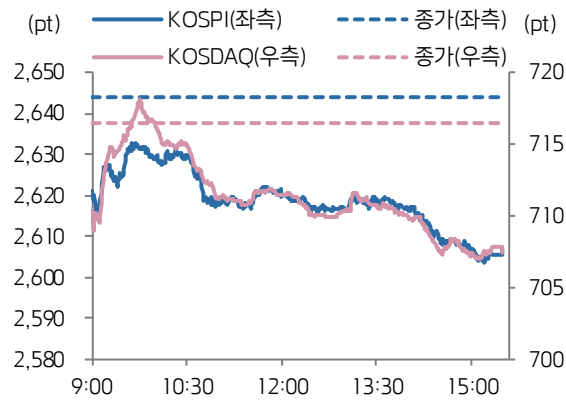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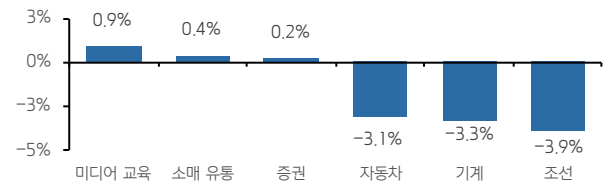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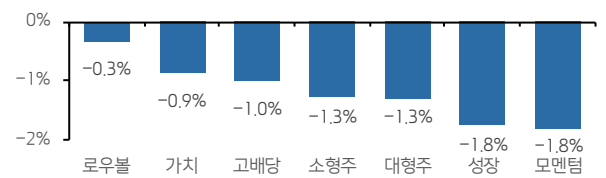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23.85	+1.05%	-10.51%	GM	47.20	-7.36%	-11.17%
마이크로소프트	390.58	+0.16%	-7.15%	일라이릴리	821.67	-0.62%	+6.62%
알파벳	162.24	-1.71%	-14.2%	월마트	85.63	+0.49%	-4.96%
메타	602.58	-1.37%	+3.01%	JP모건	248.12	-1.16%	+4.04%
아마존	201.36	+0.11%	-8.22%	엑손모빌	117.89	-0.32%	+10.57%
테슬라	273.13	+0.39%	-32.37%	세브론	166.65	-0.79%	+16.33%
엔비디아	111.43	-2.05%	-17.02%	제너럴일렉트릭	85.63	+0.5%	-5%
브로드컴	171.99	-4.06%	-25.59%	캐터필러	339.30	-0.53%	-6.12%
AMD	106.65	-3.21%	-11.71%	보잉	179.11	+0.31%	+1.19%
마이크론	91.16	-1.05%	+8.32%	넥스트에라	70.03	+0.4%	-1.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2,607.15	-1.39%	+8.65%	USD/KRW	1,464.70	-0.18%	-0.52%
코스피200	350.26	-1.34%	+10.21%	달러 지수	104.28	-0.26%	-3.88%
코스닥	707.49	-1.25%	+4.32%	EUR/USD	1.08	+0.44%	+4.32%
코스닥150	1,173.97	-1.36%	+3.91%	USD/CNH	7.27	-0.16%	-0.95%
S&P500	5,693.31	-0.33%	-3.2%	USD/JPY	151.05	+0.32%	-3.91%
NASDAQ	17,804.03	-0.53%	-7.8%	채권시장			
다우	42,299.70	-0.37%	-0.57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18.69	+1.96%	+7.72%	국고채 3년	2.630	+1bp	+3.5bp
러셀2000	2,065.70	-0.39%	-7.37%	국고채 10년	2.847	-0.6bp	-2.4bp
필라. 반도체	4,415.25	-2.07%	-11.34%	미국 국채 2년	3.990	-2.7bp	-25.2bp
다우 운송	14,883.92	-0.05%	-6.37%	미국 국채 10년	4.360	+0.8bp	-21bp
상해종합	3,373.75	+0.15%	+0.66%	미국 국채 30년	4.721	+1.9bp	-6bp
항생 H	8,677.68	+0.27%	+19.04%	독일 국채 10년	2.773	-2.2bp	+40.6bp
인도 SENSEX	77,606.43	+0.41%	-0.68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가격	DTD(%)	YTD(%)	
Eurostoxx50	5,381.08	-0.57%	+9.91%	WTI	69.92	+0.39%	-0.82%
MSCI 전세계 지수	845.96	-0.88%	+0.55%	브렌트유	74.03	+0.33%	-0.82%
MSCI DM 지수	3,709.19	-1.01%	+0.04%	금	3,090.90	+1.26%	+14.81%
MSCI EM 지수	1,131.54	+0.19%	+5.21%	은	34.90	+2.54%	+19.34%
MSCI 한국 ETF	56.49	-0.56%	+11%	구리	509.75	-2.27%	+26.6%
디지털화폐				BDI	1,634.00	-0.49%	+63.89%
비트코인	87,309.14	+0.03%	-6.83%	옥수수	450.00	-0.28%	-3.38%
이더리움	2,007.27	-0.17%	-40.02%	밀	532.00	-0.61%	-5.42%
				대두	1,016.75	+1.57%	-0.54%
				커피	378.80	-3.37%	+20.3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3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